

북한경제 연구의 이정표

북한경제 FORUM편, 「북한경제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6.

최신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의 북한 경제 연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북한경제 FORUM'에서 펴낸 『북한경제론 - 이론과 실제』가 그것이다. 이 책의 집필진은 모두 15명에 달하는데, 그 면면은 우리나라 북한 경제 연구의 '대표 선수'라 불려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모두 14개로 되어 있는 이 책의 각 장은 최고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집필되어 있다.

장별 구성과 집필자를 보자. 제1장 북한 경제의 기본적 특성(문병집, 유장희), 제2장 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이상만), 제3장 북한 경제의 기초 조건(이호), 제4장 농수산업(김원근), 제5장 광업(조종익), 제6장 공업(황의각), 제7장 사회간접자본(남궁 영), 제8장 대외경제와 무역(강정모), 제9장 국민소득과 재정(박진), 제10장 금융과 화폐(전홍택), 제11장 가격체계(김상결), 제12장 기업(조명철),

제13장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 현황과 개발 과제(배종열), 제14장 남북경협 유형과 전망(이영선).

이러한 짜임새는 교과서적인 면모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제가 그러하듯이 이 책은 이론과 실재를 아울러 다루고 있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각, 내재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한다. 머리말에 밝힌 다음 글을 보자. “본 저서는 북한 경제의 실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고찰하였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음미하고 그 이론적 배경과 각 분야의 실재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이론과 실재를 통일적으로 연구하였다.”

‘북한경제론’의 이름을 가진 책으로 이 책보다 나은 것은 현재로서 구하기 힘들다. 이 책에는 북한 경제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가 거의 대부분 집약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현재 우리의 북한 경제 연구 수준을 대변하며, 이 책에 담긴 문제는 곧 현재 우리의 북한 경제 연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에서 부분적이거나 엇보이는 문제 또는 우리의 북한 경제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몇가지 간추려보자.

우선 지적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적 구멍이 비뚤하다는 점이다. 마르크스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이론의 특성 혹은 비교경제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는데, 이는 북한 경제 연구자 가운데 마르크스 경제 이론이나 비교사회주의 경제학에 정통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역사 해석에 관련한 문제이다. 이론적 기반이 약하면 역사 해석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터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집적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하나의 책에서 북한 경제의 발전 단계 구분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사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언일지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의 북한 경제 연구가 지나칠 정도로 현상적인 데 흐르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현상 파악과 관련해서는 다른 아닌 자료 이용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은 정부 기관이 추정치를 발표할 때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일이지만, 개별 연구자들도 자료 인용에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문헌에 의거한 내용은 원전을 밝혀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 글을 쓰는 필자가 북한 경제 연구자로서 평소에 범해온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필자로서는 『북한경제론 - 이론과 실제』를 완전 무결한 책으로 평해야만 했을 것이다. 감히 확언컨대, 우리의 북한 경제 연구가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이 책보다 나은 ‘북한경제론’을 접하기는 힘들 것이다. **統**